

다산포럼

다중의 지모를 믿었던 세계주의자 최한기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

혜강(惠岡) 최한기(崔漢綺)는 한국 실학사의 대미를 장식한 존재이다. 그는 1803년에 태어나서 조선 왕국이 근대적 세계로 문을 연 개항이 이루어진 이듬해인 1877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학문은 자기 시대를 대변하듯 개방적 성격을 강렬하게 띠었다. 전 지구가 하나로 소통하는 ‘만국일통’을 고도로 강조하고, 온 누리에 안녕이 깃드는 ‘우내녕정’(宇內寧靖)을 가장 소망한 것이다. 그는 진정한 의미의 세계주의자, 지구촌의 평화를 창도한 사상가다. 혜강의 생애를 알려 주는 자료는 이상할 만큼 찾아보기 어렵다. 근대 요형히 영재 이견장이 쓴 전기적 기록이 발견되었는데 지식으로 향하는 그의 욕구가 대단했음을 흥미롭게 전하고 있다. 그는 개성의 부호 출신으로 서울서 살았다. 거의 광적으로 독서에 심취하여 좋은 책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구입하였으며, 읽

고서 충분히 섭취한 다음에는 할칼에 팔아 치우고 새 책을 구입하였다. 이 땅에 들어온 중국 신간은 그의 열람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할 정도였다. 누군가 책을 사들이는 데 돈을 너무 많이 쓴다고 탓하자 “책의 저자가 동시대인이라면 나는 그를 천리만리 길이라도 찾아가 만날 것이다. 지금 그런 수고를 들이지 않고 앉아서 만나니 돈이 훨씬 덜 드는 방식 아닌가”라고 대답하였다. 필경에 혜강은 서울 문안의 집을 팔아 성 밖으로 이사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가 이처럼 책을 찾은 이유는 새로운 지식을 담은 서적이 중국에서 간행되어 자꾸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전에 몰랐던 사실이 오늘 드러나고 전에 밝혀지지 않았던 이치가 지금의 책에 적혀 있다. 이에 토로한 말이 있다. “협시대의 책을 목마르게 찾는 심정은 예전의 책을 구하고 싶었던 때보다 배나 더 하다.” 혜강은 자신의 시대를 오랜 어둠 속에 묻혀 있다가 바야흐로 동트는 새벽, 계몽시대로 의식한 것이다. 그의 왕성한 지식 욕구는 당연히 저술로 이어졌다. 저술을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생각하였다. 하여 ‘저술공덕’이란 용어를 도입하고 있다. 저술공덕이 햇살이 피자듯 세상에 펼쳐져서 그 성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인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는 ‘사무공덕’이라고 표현했

다. 계몽이성의 효용치가 극대화된 형태가 저술공덕이고, 그 실천 과정이 사무공덕이다. 저술공덕과 사무공덕은 곧 혜강적 실학이다. 그런데 하나 지을 수 없는 의문점이 있다. 19세기라는 시대가 도대체 ‘만국일통이다, 우내녕정이다’를 외칠 상황인가? 당시 정세를 잠깐 복기해 보자. 제국주의 서구 세력의 지구적 진출은 전 세계 식민화를 초래했고 도처에 전란이 일어나 지구촌은 평온할 날이 없었다. 동북아는 유럽 국가들이 밝은 마지막 지역이었으니 중국을 보면 아편전쟁과 영불 연합군의 베이징 함락으로 심대한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중이었다. 일본으로 말하면 미국함대의 압력에 굴복하여 개항을 하게 되자 메이지유신을 단행, 군대국가로 변신하여 이 또한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한다. 세중간에 놓인 한반도에서 만국이 하나로 통하는 평화를 제창한 것은 장밋빛 환상 아닐까. 최한기의 사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그런 주장의 세운 혜강의 학적 논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가 눈앞에 출현한 서세의 위협을 모를 까닭이 없었다. 이웃의 중국에서 벌어진 사태를 조선의 조야도 심각하게 인지했던 터에 그 역시 병인양요를 듣고 보고 하였다. 그는 서양의 함성이 천

하를 주유하는 사태를 두고 두 측면에서 진단한다. 한 측면은 무력적 침공이고 다른 측면은 문화의 유통과 함께 이루어지는 지식의 진보였다. 전자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간주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하였다.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짐에 따라 우내대동의 형세는 막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의 학문은 기학에 바탕해 있었다. 혜강 특유의 기학적 사고는 밖을 향해 무한히 개방적이었거니와, 동서가 만나는 입구에서 만국일통을 내다보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미래를 우려하여 우주적 안목을 펼쳐본 것이었다. 그의 기학적 시간 표에서 우내대동은 가까이 놓인 것은 아니다. 백 년도 짧은 편이긴 하나 실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한다. 나는 이 글을 끝맺는 대목에서 혜강의 발원 한 구절을 다시 들어 본다. 필부 혼자 천하를 근심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마는 ‘다중의 지모가 취함되면 우내대동의 막기 어려운 형세가 이룩될 것’이라고 했다. 평생 저술공덕에 힘썼던 자료서의 허탈감이 담겨 있는데 그가 기대했던 다중의 지모가 취함되어 놀라운 힘을 발휘한 날을 우리는 보았다. 바로 지난 ‘촛불혁명’이었고 엊그제 다시 기대하게 타오른 서울 서초동의 촛불도 그랬다. 보통 사람들의 양식과 지혜가 결집된 것이다.

청춘 특·특

다가오는 한글날, 다시 새겨보는 한글의 소중함



이현정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

한글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한글날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더불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에 속한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한글을 창제해서 세상에 퍼낸 것을 기념하고, 우리 고유 글자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이다. 1926년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갸날’을 시초로 이어져 오다가 1928년 ‘한글날’로 바뀌었다. 광복 후 양력 10월 9일로 확정되었고,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다. 한글이 오늘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 글자로 자리 잡기 전, 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매우 높았다. 한 자는 글자 수가 너무 많고 배우기가 어려워 쉬서 보편화되지 못했고, 한글은 배우기

가 쉬웠지만 한글을 가르치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어학자들과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공문서를 비롯한 각종 문서, 신문, 잡지에 널리 쓰이게 되고, 이어서 한글 맞춤법도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졌다. 글을 모르고는 지식을 습득할 수 없고 정보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활이나 문화의 발달을 도모할 수 없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해 일정한 국제적 지위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 한글이라는 글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글날을 국경일로 지정해 한글의 창제와 그 우수성을 기리며,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고, 한글과 국어의 발전을 다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의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러한 뜻이 무색하게 최근 래어의 남용이 늘고 있다. 우리 생활 주변에서 외국어를 사용하는 폭이 넓어져 그 다문화 사회 형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일 것이다. 그러나 외래어에 밀려 우리글이 제자리를 지킬 수 없다

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국내 어디를 가도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시골 사는 노인들과 한국말 잘하는 외국인이 담소하는 모습을 TV에서 흔히 보는 세상이다. 국경 없는 글로벌 시대에 외래어를 배척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듣기 좋은 우리말이 있음에도 영어 문자를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일례로 일상 곳곳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를 들 수 있다. 프레임(틀), 스케일(규모), 에티켓(예의범절), 스케줄(일정) 등 충분히 우리말로 바꿔 쓸 수 있음에도 당연하다 싶은 영어 문자를 사용한다. 길을 지나다가 쉽게 볼 수 있는 간판조차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국적 불명의 외래어가 즐비해 눈길을 어지럽히고 있다. 대기열이나 금융권에서도 우리글을 외면하고 굳이 영어 이니셜로 사명(社名)을 바꾸고 그 로고를 고집한다.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서도 자연스럽게 외래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보고자 한글

날을 앞두고 한글 사용을 늘리기 위한 한글 로고 디자인 공모전, 한글 문화 축제 등 다양한 노력이 정부, 지자체, 기업 등의 차원에서 행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제573돌 한글날을 앞두고 김용삼 제1 차관 주재로 중앙 행정기관 국어 책임관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공공 언어 개선 모범 사례를 소개하고, 쉬운 공공 언어 쓰기 및 전문 용어 표준화회의의 활성화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김 차관은 “국어 책임관은 각 기관의 공공 언어 개선과 쉽고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므로 책임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국어는 문화의 뿌리이고 가장 중요한 터전이다. 국제화 시대, 세계 여행 자유화 시대에 외국어의 자연스런 도입과 사용은 막을 수 없다. 정부, 지자체, 기업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개인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 다가오는 한글날을 기념하며 한글의 의의와 소중함을 되새겨보는 것은 어떨까?

社說

중소기업엔 아직 부담스러운 ‘주 52시간제’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전남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은 미처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지 않아도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인력난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내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 사업장이 50·299인수로 확대됨에 따라 광주·전남 지방 중소기업협회는 최근 이에 해당하는 이 지역 제조업체 427 곳을 대상으로 ‘노동 시간 단축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35.4%인 151곳만 ‘완료했다’고 응답했으며 55.7%(238곳)는 ‘준비 중’, 3.8%(14곳)는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지역 기업들은 인력 충원과 인건비 부담, 생산량 감소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를 더 고용하라는 취지인데 대다수 중소기업들은 추가 고용보다는 조업

단축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 경우 임금 축소에 따른 숙련 근로자의 이탈, 외국인 인력 의존 심화, 생산성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국회에 기업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도입 시기를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상황이 어렵고 대기업도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준 만큼 1년 이상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난달 민주당 의원들이 대상 사업장을 규모별로 세분화해 2021~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같은 배경에서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 시간과 빈번한 산업 재해에 허덕이는 근로자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은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쉽지 않은 만큼 준비 기간을 충분히 주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립 난대수목원’ 완도 유치 총력 기울여야

국립 난대수목원 유치 경쟁이 뜨겁다. 전남 완도군과 경남 거제시 간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난대수목원 입지 선정은 10월 말경 최종 판가름 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 17일 완도에서는 산림청의 대상지 선정에 위한 현장 평가가 진행된다. 국립 난대수목원은 난·아열대 산림식물자원 연구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한반도 남부권에 조성할 예정이다. 현재 완도와 거제의 2파전으로 지자체와 주민들은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완도는 전국 최대 난대림 자생지를 보유하고 있는 완도수목원 400ha를, 경남 거제시는 동부면 구천리 일원 국유지 200ha를 후보지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림청의 현장 평가는 식생·수목원·관광 등 아홉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대상지 선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실사한다. 산림청은 현장 평가 70%, 서류·발표 평가를 30% 반영해 평균 70점 이상

을 대상지로 10월 말 최종 확정하고, 2020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이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여건에 따라 100억~200억 원이 투자되며 관련 산업 발전은 물론 관광자원으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난대수목원을 완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행히 완도수목원 지구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함께 국내 최대 난대림 집단 분포지여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분야 전문가들은 완도수목원을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최고의 난대림 군락지로 평가하고 있다. 그런 만큼 전라남도도와 완도군 그리고 지역 정치권과 대학 및 연구 기관 등도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산림청에 근거 자료를 충분히 제출함으로써 정치·경제적인 여건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 현장·타당성 심사로 대상지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조국 정국’의 한복판에 또다시 ‘촛불’이 켜졌다. 지난달 말 열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의 대규모 촛불 집회는 200만 명이 참석했다고 주최 측이 주장할 만큼 촛불의 물결로 거리가 가득 메워졌다. 이 같은 대규모 집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년 반 만이다. 이에 앞서 여섯 차례나 같은 장소에서 촛불 집회가 열렸지만 이날의 규모와 열기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갑자기 촛불이 쏟아져 나온 원인으로 는 아무래도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례적이고 과도한 조국 장관 수사 이전에는 ‘검찰 개혁’ 무산 의도가 있다는 분노가 촛불의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검찰의 피의 사실 공표 의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을 불렀던 ‘노동당 시계’에 대한 기억을 소환시키며 민심을 자극시켰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기밀로 검찰의 독주를 막고 개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민심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이 같은 민심은 검찰 개혁이라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을 만들 것

‘촛불의 지혜’

집을 기다리는 등반전을 모색하는 분위기가.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권은 대동령과 여권이 민심 분열을 조장하고 검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며 오는 3일 광화문 100만 집회를 예고하는 등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대화와 타협의 여의도 정치가 실종되고 선동과 충돌의 길거리 정치가 횡행하면서 정쟁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경제·외교·안보 등 대한민국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간단치 않다. 검찰 개혁을 위한 촛불 민심의 뜨거운 열정과 함께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임동욱 서울취재본부장 tuim@

기 고

광주 시민이 함께 만드는 쾌적한 무등산



정용상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소장

광주 시민의 오랜 벼로서 마음의 안식처가 되었던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고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올해 국립공원 지정 7년차로 접어들 무등산은 자연 자원 조사, 탐방로 정비, 훼손지 복원 등 전문적인 공원 관리를 통해 국립공원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었다. 특히 중머리재 복원은 국립공원 지정 이후 시행된 사업 중 가장 성공적이며, 광주 시민들의 가장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다. 무등산의 대표 지역이자 매년 50만여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중머리재는 2015년 하반기부터 약 10개월 간 훼손지 복원 사업을 통해 식생 복원과 탐방로 정비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중머리재는 아름다운 억새숲을 가지게 되어, 더욱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화장실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컸지만 물이 공급되지 않는 중머리재 화장실은 분노, 처리가 항상 골칫거리였다. 분노 운반을 위해서는 헬기를 활용해야 했기 때문에 연간 약 1400만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다. 무등산 국립공원의 중머리재 화장실은 애물단지였지만 수요가 많아 폐쇄할 수는 없고, 고지대에 위치한 탓에 관리의 어려움이 많았다. 고민 끝에 2016년부터 중머리재 화장실을 ‘푸세식’에서 발효식으로 구조를 변경하였다. 발효를 통해 부속되던 악취가 줄어들고 퇴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착안한 방법이었다. 2017년에는 공중 화장실 정비 공사를 통해 분노 발효소를 설치하여 발효 작업을 시행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지난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여 인분을 발효시켜 퇴비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친환경 비료 전문기를 통해 자문을 얻고, 미생물을 접종하여 발효를 촉진시켰다. 하나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분노통에는 분노담 담긴 것이 아니라 각종 쓰레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썩지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였기 때문에 발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물질이 많았기 때문에 퇴비로서의 효용 또한 매우 떨어졌다. 내부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한 끝에,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무등산을 이용하는 광주 시민들의 힘이 절실할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는 기획 단계부터 광주 시민과 동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여 중머리재 화장실에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물을 부착하고 광주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퇴비화에 필요한 주재료 왕겨를 운반하기 위해 ‘무등산과 함께할 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였다. 중머리재 복원 당시 흩날리기 행사와 같은 맥락에서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공원 관리로서 더 큰 의미를 가지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광주 시민들의 협조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분노 내 이물질이 크게 줄었고, 왕겨를 배합한 퇴비의 발효 상태도 훨씬 좋았다.

개선된 퇴비는 자체 유용성 실험을 통해 식물 생육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전문 기관을 발효 성분 분석소 의뢰하였다. 이렇게 광주 시민과의 협력을 통해 만들어진 퇴비는 공원 내 마을 농민들과 국립공원 권역별 묘포장에 제공하여 활용 중이다. 국립공원 권역별 묘포장에서는 자생 식물 증식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후 무등산에서 훼손지 복원이 이루어진다면, 친환경 퇴비를 통해 증식된 자생 식물이 무등산의 녹음을 더욱 풍성하게 해 줄 예정이다. 광주 시민의 손으로 무등산 국립공원이 점점 제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되는 것이다. 국립공원을 누릴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다. 국립공원을 누릴 권리가 있다면 국립공원을 보전할 의무와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립공원의 모습을 물려줄 책임이 동반된다. 앞으로 광주 시민들의 주인 의식이 빛을 내어 무등산을 온전히 보전한다면, 우리 후손들도 국립공원으로서의 무등산을 행복하게 누리며 광주의 자랑스러운 삼을 것이다.

| | | | |
|---|---|--|--|
| 光州日報 | | The Kwangju Ilbo | |
|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 | | |
|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내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경제부 220-0663 사회부 220-0652 전남본부 220-0642 | (대표 FAX 222-4918) 문화부 220-0661 예향부 220-0692 사진부 220-0694 체육부 220-0633 |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FAX 02-773-9331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